뽑아 읽는 ≪맹자≫ 강독 / 제4강 통치자와 통치행위에 대한 성찰」

○ ≪太誓≫曰: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孟子.萬章上≫)

【해석】
≪서경·태서≫에 이르기를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 보시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 들으신다'고 하였다.
(≪맹자·만장상≫ 중에서)

○ 「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如有不嗜殺人者, 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孰能禦之?」(≪孟子.梁惠王上≫)

【해석】
"오늘날 천하의 인목(人牧)들 중에 살인(殺人)을 즐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만일 살인을 즐기지 않는 이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늘이고 그를 바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엄청난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양혜왕상≫ 중에서)

○ 孟子曰:「三代之得天下也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 國之所以廢興存亡者亦然. 天子不仁, 不保四海, 諸侯不仁, 不保社稷, 卿大夫不仁, 不保宗廟, 士庶人不仁, 不保四體. 今惡死亡而樂不仁, 是猶惡醉而强酒.」(≪孟子.離婁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삼대(三代)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仁)때문이었고, 천하를 잃은 것은 불인(不仁)때문이었다. 한 나라가 쇠하고 흥하는 것이나 존속되고 멸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천자(天子)가 불인하면 사해(四海)를 보전하지 못하고, 제후(諸侯)가 불인하면 사직(社稷)을 보전하지 못하고, 경(卿)·대부(大夫)가 불인하면 종묘(宗廟)를 보전하지 못하고, 사(士)·서인(庶人)이 불인하면 사체(四體)를 보전하지 못한다. 지금 사망(死亡)을 싫어하면서도 불인을 즐긴다면, 이는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 失其民者, 失其心也. 得天下有道, 得其民, 斯

得天下矣, 得其民有道, 得其心, 斯得民矣, 得其心有道, 所欲與之聚之, 所惡勿施爾也. 民之歸仁也, 猶水之就下　獸之走壙也. ... 今天下之君有好仁者, 則諸侯皆爲之**毆矣**. 雖欲無王, 不可得已.(≪孟子.離婁上≫)

【해석】
걸(桀).주(紂)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길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된다. 백성을 얻는 데는 길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게 된다.
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길이 있으니, 자신이 욕구하는 것일랑 백성들과 함께 모으고 싫어하는 것일랑 베풀지 않는 것이다. 백성이 인(仁)한 이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고 들짐승이 벌판을 내달리는 것과 같다. ... 오늘날 천하의 군주들 중에 인(仁)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면 제후들이 모두 그를 위해 몰이꾼이 될 것이니, '왕(王)'이 없고자 한들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孟子曰:「以力假仁者覇, 覇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 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如七十子之服孔子也.」(≪孟子.公孫丑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힘[力]으로 인(仁)을 빌리는 것이 패도[覇]이니, 패도는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있어야 한다. 덕(德)으로 인(仁)을 행하는 것이 왕도[王]이니, 왕도는 강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湯)왕은 70리, 문왕(文王)은 100리로 하셨다. 힘으로 누군가를 복종시키려 들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복종한다. 덕으로 누군가를 복종시키려 들면,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孔子)께 복종한 것처럼,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한다."
(≪맹자·공손추상≫ 중에서)

○ 北宮錡問曰:「周室班爵祿也, 如之何?」孟子曰:「其詳不可得而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嘗聞其略也.」(≪孟子.萬章下≫)

【해석】
북궁의(北宮錡)가 말했다. "주(周)나라 왕실에서는 작록(爵祿)을 나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그 상세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후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해서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맹자.만장하≫ 중에서)

○「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愼與?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用之.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 見不可焉, 然後去之.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 然後察之, 見可殺焉, 然後殺之. 故曰, 國人殺之也. 如此, 然後可以爲民父母.」(≪孟子.梁惠王下≫)

【해석】
"한 나라의 임금이 어진 이를 등용할 때는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신분이 낮은 자를 높은 자보다 높게 만들고, 관계가 먼 자를 가까운 자보다 가깝게 만드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측근들이 모두 '어질다'고 해도 아직은 안 됩니다. 모든 대부들이 '어질다'고 해도 아직은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한 다음에 관찰하시어 '어짊'을 확인하신 다음에 등용하십시오. 측근들이 모두 '불가'라고 해도 듣지 마십시오. 모든 대부들이 '불가'라고 해도 듣지 마십시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라고 한 다음에 관찰하시어 '죽일 만함'을 확인하신 다음에 죽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맹자·양혜왕하≫ 중에서)

○ 孟子曰:「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諸侯危社稷, 則變置. 犧牲旣成, 粢盛旣絜,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 則變置社稷.」(≪孟子.盡心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백성이 귀하고, 사직(社稷)은 다음이고, 군주가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들판의 백성들에게 얻어야 천자(天子)가 되고, 천자에게 얻어야 제후(諸侯)가 되고, 제후에게 얻어야 대부(大夫)가 되는 것이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고, 희생(犧牲)이 성숙하고 자성(粢盛)이 정갈해지면 시기에 맞게 제사를 지냈음에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지면 사직을 바꾼다.

(≪맹자·진심하≫ 중에서)

○ 鄒與魯鬨. 穆公問曰:「吾有司死者三十三人, 而民莫之死也. 誅之, 則不可勝誅, 不誅,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如之何則可也?」孟子對曰:「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曾子曰: 戒之戒之!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夫民今而後得反之也. 君無尤焉! 君行仁政, 斯民親其上, 死其長矣.」(≪孟子.梁惠王下≫)

【해석】
추(鄒)와 노(魯) 사이에 내홍이 있었다. 목공(穆公: 추나라 임금)이 물었다. "나의 유사(有司) 중에 죽은 자가 33인이나 되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을 베자니 이루다 벨 수가 없고, 목을 베지 않자니 (앞으로도)윗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된 해에 군왕의 백성들 중 늙고 병 든 사람들은 구렁텅이에 굴러다니고, 건장한 이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간 것 몇 천 명이나 되었습니다만, 군왕의 곳간은 곡식과 재화로 가득했는데도 유사들 중 이를 고하는 이 하나 없었으니, 이는 윗사람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잔인한 짓을 한 것입니다.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네게서 나온 것은 네게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저 백성들이 지금에서야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니 군왕께서는 저들을 탓하지 마소서. 군왕께서 인정(仁政)을 행하신다며 백성들은 윗사람을 친애하고 윗사람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맹자.양혜왕하≫ 중에서)

○ 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曰:「不待三.」「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曰:「此非距心之所得爲也.」曰:「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曰:「此則距心之罪也.」他日, 見於王曰:「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爲王誦之. 王曰:「此則寡人之罪也.」(≪孟子.公孫丑下≫)

【해석】
맹자(孟子)가 평륙(平陸)에 갔을 때 그곳 대부에게 말했다. "창을 든 그대의 전사가 하

루에 세 번 자신의 대오를 놓친다면 빼버리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곳 대부가) 말했다. "세 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맹자) "그렇다면 그대가 대오를 놓친 것이 또한 많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된 해에 그대의 백성들 중 늙고 병 든 사람들은 구렁텅이에 굴러다니고, 건장한 이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간 것 몇 천 명이니 말입니다."
(그곳 대부가) 말했다. "이는 거심(距心: 대부의 이름)이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했다. "여기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와 양을 길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반드시 부탁 받은 소와 양을 위해 목초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초지를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부탁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서서 소와 양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곳 대부가) 말했다. "이는 거심의 죄입니다."
다른 날 왕을 만나서 (맹자는) "왕의 영토를 다스리는 신하 다섯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들 중에 자신의 죄를 아는 이는 공거심(孔距心)뿐이었습니다"라고 하고는 있었던 일을 왕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는 과인의 죄입니다."
(≪맹자·공손추하≫ 중에서)

○ 齊宣王問曰:「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孟子對曰:「於傳有之.」曰:「若是其大乎?」曰:「民猶以爲小也.」曰:「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曰:「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孟子.梁惠王下≫)

【해석】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문왕(文王)의 동산은 사방 70리였다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전하는 기록에 있습니다."
(왕): "이렇게나 컸습니까?"
(맹)자: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왕):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였지만, 꼴을 베고 땔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꿩이나 토끼를 잡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하였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신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 나라에서 가장 크게 금하는 것을 물은 다음 감히 들어왔습니다. 신이 듣기로, 들과 관문 사이에 사방 40리쯤 되는 동산이 있는데, 그곳의 사슴을 죽이는 자는 살인을 한 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라 가운데 사방 40리짜리 함정을 파놓은 셈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맹자.양혜왕하≫ 중에서)

◯ 齊宣王問曰:「齊桓　晉文之事可得聞乎?」孟子對曰:「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曰:「德何如則可以王矣?」曰:「保民而王, 莫之能禦也.」曰:「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曰:「可.」曰:「何由知吾可也?」曰:「臣聞之胡齕, 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釁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有諸?」曰:「有之.」曰:「是心足以王矣.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王曰:「然, 誠有百姓者.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
曰:「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
王笑曰:「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曰:「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君子遠庖廚也.」
王說曰:「≪詩≫云,　他人有心, 予忖度之.　夫子之謂也. 夫我乃行之, 反而求之, 不得吾心. 夫子言之, 於我心有戚戚焉. 此心之所以合於王者, 何也?」
曰:「有復於王者曰:　吾力足以擧百鈞, 而不足以擧一羽, 明足以察秋毫之末, 而不見輿薪　, 則王許之乎?」曰:「否.」
「今恩足以及禽獸,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 然則一羽之不擧, 爲不用力焉,

왕께서 어느 날 당상에 앉아 계시다가 소(牛)를 몰고 당하로 지나는 사람을 보시고 '소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자,
소를 몰고 가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피를 내어 새로 만든 종에 피를 칠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왕께서 '놓아 주어라. 내 그 소가 부들부들 떠는 것이 마치 죄 없이 사지

(死地)로 끌려가는 것 같아 차마 볼 수가 없구나'라고 하시자,
소를 몰고 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종에 피칠을 하는 제사를 폐하리까?' 하니,
왕께서 '어찌 폐할 수야 있겠느냐. 양으로 바꿔서 지내도록 하라!'

輿薪之不見, 爲不用明焉,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 故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
曰:「不爲者與不能者之形何以異?」
曰:「挾太山以超北海, 語人曰: 我不能. 是誠不能也. 爲長者折枝, 語人曰: 我不能. 是不爲也, 非不能也. 故王之不王,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 王之不王, 是折枝之類也.」(≪孟子.梁惠王上≫)

【해석】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제(齊)나라 환공(桓公)과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일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중니(仲尼: 공자의 자)의 무리들은 환공과 문공의 일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지지 않아 신이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두지 말라 하시면 '왕(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덕(德)이 어떠하면 '왕(王)'이 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백성을 보호하면서[保民] 지배한다면 능히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신이 왕의 신하인 호흘(胡齕)에게서 들으니,
라고 하셨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이러한 마음이 왕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다 왕을 두고 인색하다고 하지만 신은 왕이 차마 못하심[不忍]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제나라가 아무리 좁고 작다 한들 내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다만 그 소가 부들부들 떠는 것이 마치 죄 없이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것 같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양으로 바꾸라 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더러 '아꼈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큰 것과 바꾸라 하셨으니, 저들이 어찌 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신 것이라면 소와 양을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왕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정녕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로 바꾸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날더러 '아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상심치 마십시오. 그것이 곧 인한 방법이니, 소는 보았으나 양은 보지 못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군자는 새나 짐승에 대해 살았을 때를 보았다면 차마 그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는 순간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이 먹은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더니, 선생님을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내가 행한 것이지만 돌이켜 구해보아도 내 마음을 얻을 수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내 마음에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왕이 되는 데 부합한다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왕께 아뢰기를 '나의 힘은 3천근은 들 수 있어도 새의 깃털 하나는 들지 못합니다'라고 하거나, '시력의 밝기는 가을에 털갈이 한 털끝은 살필 수 있어도 수레에 가득 실은 섶은 보지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왕께서는 정말이라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이제 은혜가 새와 짐승에게까지 미치면서도 공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다면, 새의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수레의 섶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왕께서 '왕' 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일 뿐,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왕이 말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맹자가 말했다.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훌쩍 뛰어넘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 하나 꺾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왕' 되지 못하심은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훌쩍 뛰어넘는 종류가 아닙니다. 왕께서 '왕' 되지 못하심은 나뭇가지를 꺾는 종류인 것입니다."
(≪맹자.양혜왕상≫ 중에서)